



‘황금 화살’ 명종

11일 밤 카타르 도하 루사일 양궁장에서 열린 도하 아시안게임 양궁 여자개인 결승전에서 박성현이 과녁을 정조준하고 있다. /연남뉴스

日과 2위 경쟁 치열...골프 첫 쏜종목 석권

한국과 일본이 종반으로 접어든 제15회 아시안게임에서 종합 2위 자리를 놓고 숨가쁜 메달 레이스를 펼치고 있다. 한국은 12일(한국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계속된 2006 도하아시안게임 사이클 남자 대표팀이 2006 도하아시안게임 4km 단체 추발에서 4분12초746에 주파, 이종목 챔피언에 올랐다. 한국은 이날 펜싱에서도 여자 플뢰레 결승에 한국 선수끼리 출전해 남현희(서울시청)가 서미정(강원도

청)을 15-10으로 꺾고 금·은메달을 나눠가졌다. 앞서 11일에는 골프에서 남녀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하며 아시아 최강국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김경태(20·연세대)는 이날 도하골프장(과72·7천181야드)에서 벌어진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남자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뒤 강성훈(19·연세대), 김도훈A(17·영신고), 김도훈B(17·양정고)와 짝을 이룬 단체전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여자부(과73·5천751야드)에서는 유소연(16·대원

외고)이 개인전 금메달을 차지한데 이어 최혜용(16·예문여고), 정재은(17·세화여고)과 단체전 금메달도 합작했다. 전통적 강세종목인 양궁에서도 금메달을 추가, 2위 탈환에 힘을 보탤다. 2004년 아테네올림픽 2관왕인 박성현(전북도청)은 루사일 양궁장에서 열린 여자 개인전 결승에서 대표팀 후배 윤옥희(21·예천군청)를 95-91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박성현은 양궁에서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등 4개 대회 개인전을 모두 우승한 최초의 선수가 됐다. 한국은 또 복싱과 여자 핸드볼, 사이클 등에서도 결승 티켓을 거머쥐며 메달레이스에 박차를 가했다. 그러나 우승을 장담했던 남자 7인제 럭비는 일본과 결승전에서 경기 종료 직전 역전을 허용해 26-27로 뼈아픈 패배를 당했다. 이밖에 요트에서는 남자 470급에서 아시안게임 3연

속 우승에 도전하는 김대영(31)-정성안(35·이상 평택시청) 조가 11차 레이스에서 1위를 차지, 금메달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로써 12일 오후 8시 현재 금메달 7개를 추가한 한국은 메달 집계에서 금 45, 은39, 동메달 70개를 기록, 2위 일본(금45, 은51, 동58)과 은메달에서만 뒤져있다. 최강 중국은 금 124개, 은 70개, 동 49개로 질주를 계속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메달밭 양궁서도 금 캐기 시작 女공사 박성현 첫 ‘그랜드슬램’

사이클 단체추발 ‘금’



남자 4km 아시아新...장선재 2관왕

한국 사이클 남자 대표팀이 2006 도하아시안게임 4km 단체 추발에서 아시아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땀다. 장선재(22·대전지적공사), 황인혁(18·한국수자원공사), 김동훈(20·국민체육진흥공단), 박성백(21·서울시청) 등 4명으로 구성된 대표팀은 12일 카타르 도하 아이버럴 벨로드롬에서 열린 이란과 결승에서 4km를 4분12초746에 주파, 4분14초226에 그친 이란을 제치고 1998년 방콕 대회 이후 8년 만에 이종목 챔피언을 탈환했다. 전날 예선전에서 4분14초534의 아시안게임 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하며 결승에 직행한 한국은 이날 결승에서 마지막 2바퀴를 남긴 상황에서 상당한 거리를 앞서 사실상 우승을 확정지은 분위기였다. 이후 기록 경신에 돌입한 한국은 마침내 지난달 18일 호주 시드니 트랙 월드컵에서 수립된 아시아기록 4분12초762를 0.106초 앞당기는 신기록을 작성했다. 4km 단체 추발은 한 팀 4명이 동시에 출발, 일렬로 트랙 16바퀴를 돈 뒤 세 번째 주자의 앞 바퀴가 결승선을 통과한 기록으로 순위를 가린다. 지난 10일 남자 4km 개인추발에서 정상에 올라 장윤호 사이클 중장거리 부문 대표팀 감독과 부자(父子) 금메달의 인연을 이은 장선재는 이로써 이번 대회 2관왕에 등극했다. 한국 사이클은 장선재, 전날 여자 4km 개인추발에서 정상에 오른 이민혜에 이어 이번 대회에서 세 번째 금메달을 수확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오늘의 주요 경기

- ▲양궁
 - △남녀 단체 결승(13시)
- ▲농구
 - △남자 준결승(23시)
- ▲복싱
 - △48kg급 등 결승(20시)
- ▲카누
 - △K-1 500m 등 예선(16시)
- ▲사이클
 - △스프린트 등(18시)
- ▲펜싱
 - △사브르 단체 등(15시)
- ▲축구
 - △여자 한국-중국 3~4위전(22시)
- ▲핸드볼
 - △여자 결승 한국-카자흐스탄(14일 0시)
- ▲하키
 - △여자 3~4위전 한국-인도(21시)
- ▲공수도
 - △쿠미테 60kg급 등(19시)
- ▲요트
 - △420급 등 결승(17시)
- ▲세팍타크로
 - △남녀 복식(15시)
- ▲소프트볼
 - △한국-북한 예선리그(14시30분)
- ▲스쿼시
 - △남녀 단식 준결승(22시)
- ▲다이빙
 - △3m 스프링보드(17시10분)
- ▲수구
 - △순위 결정전(22시)
- ▲테니스
 - △남녀 단·복식 결승(17시)
- ▲배구
 - △남자 준결승(20시)
- ▲레슬링
 - △남자 자유형 60, 74, 96kg급(15시)
- ▲우슈
 - △남권 전능 등(15시)



다이빙 싱크로나이즈드 ‘동’

권경민(앞)-조관훈 조가 12일 카타르 도하 하마드 아쿠아틱센터에서 열린 남자 다이빙 싱크로나이즈드 10m 플랫폼에서 연기를 선보이고 있다. 이들은 430.74를 받아 3위를 차지했다. /연남뉴스

중동 심판 편파 판정 男핸드볼 6연패 좌절



2006 도하아시안게임에 출전한 한국 남자핸드볼의 대회 6연패 꿈이 중동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좌절됐다. 한국은 12일 열린 남자핸드볼 준결승에서 주최국 카타르를 맞아 중동 심판의 노골적인 편파 판정에 휘말리며 28-40으로 분패했다. 이번 경기에 배정된 심판은 쿠웨이트 출신 알리 압둘후세인과 사미 칼라프. 이들은 경기 시작부터 편파판정을 일삼았다. 경기 시작 30초 만에 이태영이 왼쪽 측면에서 골을 넣었으나 라인을 밟았다며 무효처리했고, 이어진 속공기회에서는 백원철의 오버스텝을 선언했다. 이후부터 심판들의 편파판정은 공격의 핵인 203cm의 장신 공격수 윤경신에게 집중됐다. 전반 4분 윤경신이 속공 기회에서 두어발짝 밖에 밟지 않았는데 심판은 곧바로 오버스텝을 선언했고 윤경신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짓자 2분 퇴장을 쏘았다. 이후부터 심판들은 턴오버(공격권이 넘어가는 것) 작전을 썼다. 원래 신체 접촉이 많은 핸드볼 경기에서 한국이 상대에게 조금만 닿으면 턴오버를 불어냈다. 한국 수비 때에는 무조건 2분 퇴장에다 7m 드로우를 선언했다. 후반들어 심판들의 편파판정은 도를 더해갔고, 후반 8분에는 김장문이 레드카드로 실격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男배구도 ‘흠 텃세’ 우려

2006 도하아시안게임 막판 개최국 카타르가 핸드볼 편파 판정으로 흠 텃세를 부린 가운데 아시안게임 2회 연속 금메달을 노리는 남자배구도 카타르와 준결승을 앞둔 ‘편들기 심판’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호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남자배구대표팀은 14일 오전 2시(이하 한국시간) 알 라얀 인도어홀에서 카타르와 결승 진출을 다툰다. 카타르는 세계랭킹 40위로 객관적인 전력에선 한국(19위)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된다. 모하메드 주마, 알리 바이라미, 이스마일 알 시브 등 190cm대 빠른 공격수들을 앞세워 8장에서 바레인을 3-0으로 셋아웃시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지만 한국의 8강 상대였던 이란보다 까다롭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심판 판정이다. 이번 대회 배구에는 47명의 심판이 투입됐는데 중동권 심판이 74%인 35명이다. 여기서 비중동권 심판 12명 중에서도 4명은 정서적으로 중동과 가까운 튀니지 출신이다. 흠 텃심 판정이 넷 옆에 올라서는 일은 없겠지만 같은 중동권 심판이 배정된다면 한국으로선 아무래도 불리할 수밖에 없다. /박진표기자 lucky@